

문인 동원의 병참학*: 아시아·태평양전쟁 하의 ‘대동아문학자대회’를 중심으로

이혜진**

목 차	
I. ‘대동아문학자대회’의 사건성: ‘탈아입구’에서 ‘대동아공영’으로	III. ‘대동아문학자대회’의 전제: ‘국민문학’에서 ‘대동아문학’으로
II. ‘대동아문학자대회’의 전모와 실태	IV. ‘대동아문학’의 사상적 지표: 고대 표상의 음화
	V. ‘대동아문학’의 가능성과 의의

| 논문요약 |

식민지 말기 제국 일본과 식민지·점령지의 대표적 문인들의 국제회합이었던 ‘대동아문학자대회’는 ‘국민문학’의 향방을 결정한 최종심급에 해당한다. ‘조선문학의 혁신’을 명분으로 한 문화주의의 청산과 국가주의로의 전환이 조선문학 전환론의 초기적 형태였다면, 『국민문학』이 1942년 5·6월 합병호부터 전면적인 ‘국어잡지’로 변모하고 ‘국어’가 ‘대동아공영어’로 승격되었으며 일본의 고대세계가 ‘국민문학’의 주요 소재로 채택된 경위는 조선문학 전환론의 후기적 형태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분은 ‘일본문인보국회’의 결성과 함께 기획된 세 차례의 ‘대동아문학자대회’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예컨대 최재서가 뒤늦은 창씨개명을 단행하면서 최종적으로 ‘받들어 모시는 문학’으로 향했던 것은 이러한 맥락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의 ‘국민문학’이라는 상위개념 하에서 ‘대동아문학자대회’는 일종의 단층의 계기

* 이 논문은 日本學術振興會科學研究費補助研究 <朝鮮近代文學における日本語創作に關する總合的研究> (2013-2015年度·代表 波田野節子(新潟縣立大教授) 研究課題番号: 25284072)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다.

** 세명대 교양과정부 조교수.

를 형성하면서 이후 '성전' 완수를 목표로 한 '대동아문학'을 구성해갔다. 또한 거기에 수반하여 일본의 '국체' 인식을 명분으로 한 '일본정신'의 강화는 일본 고도(古都)의 성소참배 여행 등을 통해 식민지 문인들의 자기수양을 위한 수단으로 제공되었다. 그러나 조선과 일본의 고대세계에 대한 역사적 상상력은 각각의 문화적 우월감으로 상치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으며, 따라서 진정한 '대동아문학'은 결국 그 형성을 보지 못한 채 제국과 식민지의 상호배반으로 귀결되었다.

· 주제어: 대동아문학자대회, 국학, 국민문학, 일본정신, 아시아태평양전쟁

I. '대동아문학자대회'의 사건성: '탈아입구(脫亞入歐)'에서 '대동아공영'으로

20세기가 근대 국민국가의 실험장이었다면, 21세기에는 초국가적 다중심의 원리가 실험되고 있다. 더욱이 근대 국민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상징하는 다국적주의가 전 세계의 지배원리로 등장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급부상은 미국의 패권 횡보를 저지하면서 미국과 중국을 축으로 한 신냉전시대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과 일본 요코하마(横浜)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는 그야말로 동아시아의 시대를 실감케 해준다. 이들은 세계 경제의 장래가 달린 환율전쟁과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의제로 설정한 데다 각국의 정상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아시아의 시대'를 역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계화를 주도하는 핵심주체로서의 아시아의 부상은 새로운 세계 재편의 모험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편 거기에 어떤 우려가 동반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는 과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리로 자부심이 팽배해진 일본이 또 다시 아시아-태평양전쟁을 감행하면서, 서구의 근대를 초극함으로써 아시아의 해방과 공생을 주창했던 '대동아공영'의 잔상이 오버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일제 말기에 일본은 “서양에 의존하지 않는 안전보장의

새로운 방법, 서양에 굴종하지 않고 일본의 지위를 승인하는 방법, 일본의 이익과 일본의 정의 관념을 일치시키는 국제적 권력행사의 정당한 방식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탐색”(Berger 1974, 197)하면서 아시아 국가들과 연대하고자 했던 ‘대동아공영권’을 구상했던 바 있다. 이는 19세기 말 “마음으로부터 동방의 악우(惡友)를 사절”(福澤諭吉 1885年 3月 16日)하고 서양의 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탈아입구(脫亞入歐)’를 선언했던 일본이 ‘아시아로의 회귀’로 급격한 방향전환을 단행한 것이었다. 즉 절대적인 동경과 모방의 대상이었던 서양이 돌연 대결의 대상으로 급변하면서 일본이 세계사관적 지평이 전환되었던 것인데, 이런 점에서 ‘대동아공영’은 서구의 근대를 초극한다는 사명과 아시아에서의 지도권을 주장하는 원리적 배리가 현재까지도 아포리아로 남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 따라서 ‘아시아주의’의 선구적 형태라 할 수 있는 ‘대동아공영’은 아시아 민족의 연대가 시도된 최초의 사례였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 반식민지 상태였던 중국, 그리고 명목상의 독립이 허용되었던 버마와 필리핀, 군정 통치를 받았던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다차원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태평양전쟁의 한가운데 동아시아의 문인들은 지리적 운명 공동체로서의 ‘대동아문학’의 가능성을 타진했던 바 있다. 1942년 11월, 1943년 8월, 1944년 11월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중국, 조선, 만주, 몽골 문학자들의 국제적 회합이었던 이른바 ‘대동아문학자대회’가 그것이다. ‘대동아문학자대회’는 시기적으로나 내용상 ‘근대의 초극론’과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으나, ‘근대의 초극’ 좌담회가 일본 최고의 엘리트들로 구성된 스마트한 외관을 취했던 것과 달리 ‘대동아문학자대회’는 각국을 대표하는 문학자들의 국제적 회합이라는 명분에 걸맞지 않게 앵무새의 언어에 비견될 만큼이나 조악한 외관을 띠고 있다. 다시 말해 ‘근대의 초극’ 좌담회가 강력한 서구와의 전쟁에 직면한 정세가 배태한 민족주의의 심층심리를 로고스화한 것이었다면(히로마쓰 와타루 2003, 146), ‘대동아문학자대회’는 토론이 지양된 채 수행적 발화만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일본) 민족주의 심층심리의 파토스화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동아문학자대회’는 “보통 회합과 같이 갑론을박한 끝에 다수결 등의 형식으로 어떠한 결의를 얻고 그 결의가 성립된 다음에는 누구나 그것에 구속됨과 같은 議事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대동아전쟁’이라는 ‘성전(聖戰)’ 완수를 위해 “각자의 소신을 피력하고 결의를 표명”(俞鎮午 1943年 10月, 88)하는 것만이 허용된 무력한 형태의 국제회합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동아문학자대회’는 일본 ‘국체(國體)’의 이념적 편향에 따른 강력한 관념성으로 인해 이론이나 사상이 될 만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이와 관련해 하시카와 분조(橋川文三)는 진무(神武) 천황의 ‘팔굉일우’나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의 일본국학 등 다양한 일본의 신화적 혹은 전통적 심정이 전부 ‘대동아공영권’의 사상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사상적 내용이 부재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화적 요소들이 범람할 수 있었다는 점을 환기한 바 있다(竹內好 外 1963, 6).

‘대동아문학자대회’는 ‘일본문인보국회’의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였던 사무국장 구메 마사오(久米正雄)가 가장 힘을 쏟았던 기획으로서, “일본문학보국회의 근간을 이루는 사업 중의 하나”(吉野孝雄, 2008, 136; 尾崎秀樹 1991, 18)였다. 그러나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계기로 ‘성전 완수’라는 목적하에 동시기에 개최되었던 ‘근대의 초극’ 좌담회가 전후 일본의 반성과 성찰의 반면교사로서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데 반해 ‘대동아문학자대회’는 그동안 일본뿐만 아니라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도 도외시되었다. 가령 당시 일본에서는 ‘대동아문학자대회’와 관련한 특집이 구성되는 등 언론 보도가 왕성했던 데 비해 조선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는데, 각 식민지의 현지 사정에 밝은 거물급 대표 문인들을 ‘초대 후보자’로 인선(人選)했던 만큼 이 사건은 당시의 시류에서 볼 때 무시될 만한 행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조선 언론매체의 보도가 일본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미비했던 것은 그만큼 ‘대동아문학’의 실현에 대한 정당성과 절실함이 미약했던 무의식의 반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대회 참석자들의 발언이 모두 ‘스메라 아시아론(皇亞論)’의 반복적 슬로건뿐이었다는 점이 후대 연구자들에게서 도외시된 주요한 이유였겠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대회에 참석한 문인들의 발언이 모두 ‘국민문학’의 연구 자료로 집중되면서 ‘친일논설’이나 시찰·기행문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애초에 연4회 ‘국어관’, 연8회 조선어관으로 기획되었던 『國民文學』지가 1942년 5·6월 합병호부터 전면 ‘국어관’으로만 간행된다든가 ‘국어’로서의 일본어가 ‘대동아공영어’로 승격되어 보급되고, 이광수와 최재서가 일본의 전통·고전세계로 침투하거나 최재서가 때늦은 창씨개명을 단행(1944.1.1.)하는 등 조선 문인들의 신념이 급격히 하강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세 차례에 걸친 ‘대동아문학자대회’였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요컨대 식민지 조선의 ‘국민문학’이 하나의 지방문학으로서 일본문학의 일익을 담당하고 ‘황국신민’이 되기 위한 목적에 의거한 것이었다면, ‘대동아문학’은 일본이 중추가 된 ‘대동아공영권’의 구성원인 아시아의 민족이 함께 연대하여 ‘성진’을 완수함으로써 ‘대동아’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문학의 재편이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대동아문학자대회’를 ‘국민문학’이라는 상위개념 내부에서의 단층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예컨대 1942년 이후 이광수, 최재서, 유진오 등 이른바 ‘국민문학 작가들’의 글쓰기가 일본의 고대세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대동아문학’으로의 재편에 따른 ‘일본정신’의 보급·강화에 따른 주문이었고, 또 그것은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 채택된 결정사항을 수행하는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문학’ 단계에서는 ‘로컬컬러’로 표상되는 조선문학의 특수성에 관한 논의가 가능했던 만큼 ‘지방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의 입지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었던 데 비해, ‘대동아문학’은 천황제에 근거한 ‘광굉일우’ 사상을 슬로건적으로 반복하는 것만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변별될 수 있다는 것이다.¹⁾

만주사변 시기의 ‘오족협화론’과 중일전쟁 시기의 ‘동아신질서론’을 거쳐 아시아·태평양 시기의 ‘대동아공영권론’은 만주에서부터 중국을 포함하는 ‘동아’로, 나아가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대동아’로 이어지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 의욕과 함께 아시아의 해방과 공생을 주창하는 이론적 모순의 반복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 목도되는 사상적 무용성이나 이념적 허구성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은 그다

1) 예컨대 ‘국민문학’의 이론가를 자처했던 최재서가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석한 뒤에 쓴 「古丁氏へ」(『國民文學』, 1945.1)에서 당시에 통용되던 ‘국민문학’이나 ‘지방문학’이라는 용어 대신 앞으로 건설해가야 할 조선문학을 ‘신일본문학’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 근거한 것이다.

지 유용한 논의거리가 아니다. 오히려 사후의 부정적 평가가 가로놓여 있다는 사실 그 자체 때문에 현재의 시공간으로 과거의 사건적 맥락을 문제적으로 호출하고 거기서 사유를 거듭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장소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과정으로 삼는 것이 보다 생산적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초월하면서 국민국가의 기반을 무너뜨린 ‘대동아공영’을 선도했던 ‘대동아문학자대회’를 사건적으로 추적하면서 거기서 목도되는 마찰과 상극을 검토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II. ‘대동아문학자대회’의 전모와 실태

‘대동아문학자대회’는 1941년 12월 8일 아시아·태평양전쟁의 개전을 계기로 ‘일본문학보국회’가 결성(1942.5.26.)되면서부터 준비단계에 착수한 이래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²⁾ ‘제1회 대동아문학자대회’는 1942년 11월 3-5일, ‘제2회 대동아문학자대회’는 1943년 8월 26-28일, ‘제3회 대동아문학자대회’는 1944년 11월 12-14일에 개최되었으며,³⁾ 대회의 근본 목적은 “대동아전쟁하 문화 건설이라는 공통의 임무를 지고 공영권 각지의 문학자가 한데 모여 함께 그 포부를 갖고 서로 흥금을 터놓고 이야기한다”(尾崎秀樹 1991, 19)는 데 있었다.

‘제1회 대동아문학자대회’는 명치절(明治節)을 기해 1942년 11월 3일 1,500여 명의 참가자가 ‘제국국장’에서 개회식을 거친 후, 11월 4·5일 ‘대동아회관’에서 본회의가 거행되었다. 개회식장은 “회장 정면 중앙에 큰 일장기를 중심으로 만주·중화의 큰 국기가 함께 펄러 잇고 이 양쪽 옆을

2) ‘제4차 대동아문학자대회’는 1945년 11월 창춘(長春), 즉 당시의 신징(新京)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일본의 패전으로 인해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3) ‘대동아문학자대회’의 본회의는 각각 삼 일간 진행되었지만, 대회를 전후로 하여 궁성요배와 성소참배가 필수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회와 제2회는 대회 종료 후 ‘일본정신’을 함양한다는 취지에서 일본의 고도(古都)인 교토(京都)와 나라(奈良)를 견학했고, 중화민국의 수도인 난징(南京)에서 개최된 제3회 대회를 마친 후 문인대표단들은 쑤저우(蘇州) 주둔 사령부에서 전황을 보고받기도 했다. 각 대회의 여정과 견학에 관한 자세한 일정은 <부록1> 참조.

노피가 십여 척이나 되는 붉고 누르고 흰 국화씨와 향기를 써 규”(『每日新報』, 1942년 11월 5일) 있었다. 제1회 대회의 취지는 “동아의 천지로부터 米英의 침략세력과 위만적인 물질문화를 격멸하고 참된 세계 인류의 평화를 일으켜야 할 도의적 정신문화를 수립하기 위해 日滿華蒙의 대표적 문학자들과 한데 만나 문학자로서 정신 협력을 해야 할 具體策을 의논”(『日本學藝新聞』 1942년 11월 1일; 『文學報國』 昭和18年 8월 20일)하는 데 있었다. 이에 따라 11월 3일의 의제는 (1) 대동아전쟁의 목적 완수를 위한 공영권 내 문학자들의 협력 방법과 (2) 대동아문학 건설이었고, 11월 4일의 의제는 대동아 정신의 수립이었으며, 11월 5일의 의제는 (1) 대동아 정신의 강화·보급과 (2) 문학을 통한 대동아전쟁 수행에 대한 방책이 상정되었다. 이때 “일본문학보국회의 회원으로서 대회 접대역을 겸해 출석”(芳村香道 1942년 10월 29일)한 일본 측 대표인 조선 문인들은 가야마 미쓰로(香山光郎, 이광수), 요시무라 고도(芳村香道, 박영희), 유진오, 데라다 에이(寺田瑛, 경성일보 학예부장), 가라시마 다케시(幸島驍, 경성제대 법문학부장 겸 조선문인보국회 이사장)로 총 5명이었으며, 그들의 대회 발언 제목은 다음과 같다.

가야마 미쓰로(香山光郎, 이광수), 「‘동아정신의 수립’에 대하여」
 유진오, 「대동아정신의 강화 보급에 대하여」
 요시무라 고도(芳村香道, 박영희), 「‘문학을 통한 대동아전쟁 완수의 방법’에 관하여」
 데라다 에이(寺田瑛), 「문학 민족 급 국가간의 사상 문화의 융합을 기하는 방법에 대하여」(『大東亞』 1943년 3월, 48-55)

‘제2회 대동아문학자대회’는 1943년 8월 25일 ‘제국극장’에서 개회식을 거행하고, 8월 26·27일 이틀에 걸쳐 본회의가 진행되었다.⁴⁾ 일본의 전황이 매우 불리해진 상황에 따라 원래 중화민국의 쌍십절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계획을 앞당겨 특별히 ‘결전회의’ 혹은 ‘결전문학자대회’로 지칭되었던 만큼, 제2회 대회의 취지는 ‘대동아전쟁’의 무조건적 승리를 위한 문화

4) ‘제2회 대동아문학자대회’의 의제와 각 대표의 발언 및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3> 참조.

협력의 실천방책을 이끌어내는 데 있었다.

대동아전쟁의 전황은 바야흐로 뜨겁게 끓어오르고 그 완수를 위한 공영권 내의 결전 태세는 이미 완비되었으나 그 강화는 초미의 급무를 요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동아 속에 참진한 諸國의 문학자를 초청하여 상호 문화적 협력의 의지를 확보하기를 그치지 않고, 眼前의 결전에 승리하리라는 결의와 함께 실천방책에 대해 흥금을 터놓고 회의 담합하고, 동시에 건학 기타에 대한 방법에서부터 우리 국민과 국체의 존엄하고 진정한 모습을 현시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참진 문화인의挺身 협력을 촉진할 것을 기할 것(尾崎秀樹 1991, 26-27).⁵⁾

대회 진행 도중 “솔로몬 방면의 전황 뉴스”(崔載瑞 1943年 10月, 134)가 시시각각 들려왔다는 최재서의 진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시기는 일본이 미드웨이해전(1942.6)에서 참패한 이래 과달카날 전투에서 패하고(1943.2) 에투 섬의 일본 수비대가 전멸했으며(1943.5), 1943년 7월 연합군이 시칠리아 섬에 상륙하면서 무솔리니 정권의 붕괴를 가져왔던 만큼 일본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화민국의 협조가 절실한 때였다. 이러한 대외 정세가 반영된 제2회 대회는 중화민국 측의 문인 참석률이 가장 높았고, 그런 점에서 특별히 “일본문학 대표와 지나문학 대표의 회합”(다케우치 요시미 2011, 65)이라고도 평가되었다. 중화민국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신문에 게재되었음에도 고혈압을 이유로 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저우쥘린(周作人)에 대해 가타오카 닛페이(片岡鐵兵)가 ‘반동작가’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거기에 장혁주와 추원뒤(丘韻鐸)가 함께 가세했던 데는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적군 한 사람을 지적할 터인데, 바로 평화지역(운합구:일본의 점령지역-인용자)의 반동 노작가이다. 그는 비록 평화지역 내에서 생활하고 중국문단에서도 지명도가 있는 문학자로 추앙받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과 이념이나 열정, 그리고 문학 활동 등에서 우리와 완전히 대립된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5) 이하 일본어 번역은 필자에 의한 것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와 사상, 행동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과 적대관계를 형성했다(왕상위엔 2010, 30 재인용).⁶⁾

이러한 정세에 따라 제2회 대회의 의제는 ‘결전태세’에 조용하는 문학자의 사상 선전 역할에 집중되어 있었다. 예컨대 필승의 신념을 피력한다거나 ‘결전문학’ 혹은 ‘대동아문학’의 이념을 확립하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기획할 수 있는가 하는 실천적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이야기되었는데, 이때 일본 대표로 참가한 조선 측 문인은 유진오, 최재서, 유치진, 가네무라 류사이(金村龍齋, 김용제), 쓰다 가타시(津田剛, 녹기연맹 주제)였고 여기에 도쿄 현지에서 장혁주(대회준비위원)가 가세했다. 제2회 대회의 조선 측 발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최재서, 「결전 조선의 급전환: 징병제의 시행과 문학 활동」
 유진오, 「거대한 융화: 결전문학의 이념 확립」
 가네무라 류사이(金村龍齋, 김용제), 「황민생활의 강화: 국민운동에 끌어오르는 조선 문단」
 유치진, 「신국운동의 촉진: 황도정신의 일상화에 박차」
 (『文學報國』, 1943年 9月 10日)

1944년 11월 12-14일까지 난징(南京)에서 개최된 ‘제3회 대동아문학자 대회’는 세 차례의 대회 중 중화민국 대표 측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는 점 외에 자료가 그다지 남아 있지 않아(오카다 히데오 2008, 223) 본회의만 간략히 살펴볼 수 있다.⁷⁾ ‘남경대회’라고도 불리는 제3회 대회는 개최하기 바로 직전인 1944년 11월 5·6일 도조 히데키(東條英機)가 식민지와 종속·점령지 6개 국가를 상대로 한 국제정상회담이라 할 수 있는 ‘대동아회의’를 개최한 이후 그것의 연속선상에서 아시아의 해방과 공존공생에 대

6) 왕상위엔(王向遠)에 의하면, 당시 저우쥬런은 윤합구에서 대작가의 반열에 오른 유일한 작가였다. 그럼에도 가타오카 텃페가 저우쥬런을 맹공격했던 이유는 당시 저우쥬런이 발표한 「중국의 사상문제」가 ‘대동아공영’ 사상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만년의 회고록 『知堂回顧錄』(1970.5.)을 통해 술회한 바 있다.

7) 여기서의 간략한 정리는 왕상위엔의 논문에 의거한 것이다.

한 기획인 ‘대동아공동선언’을 심화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이 시기는 일본의 패망을 목전에 두고 ‘결전필승’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사상전’에 박차를 가했던 때였던 만큼, 제3회 대회의 진정한 취지는 ‘대동아공영권의 문화정책’에 대한 선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다(『文學報國』, 1944年 11月 1日).

그러나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의 ‘아시아는 하나다’라는 슬로건을 “만병통치약”(山田清三郎 1957, 134)처럼 남용하면서 식민지와 점령지 국가를 일본과 동일한 위치로 승격시킴으로써 공동의 책임하에 전쟁에 복무하는 것이 아시아의 해방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식민 지배의 형식을 비(非)-식민정책으로 변증하는 자기기만적 논리라는 것쯤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대동아문학자대회’의 근본 의미가 “문학성보다도 차라리 정치성에 있다”(俞鎮午 1943年 10月, 88-89)고 본 유진오의 지적은 타당하며, 또 중국과 일본의 문화교류가 “임시적인 이익을 도모한다든가 개인적 명성을 얻기 위해 투기적 유행을 쫓는 속임수가 아니기를 바”(陶亢德, 1943年 11月)란다는 타오강더(陶亢德)의 우려 섞인 목소리는 이 대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천편일률적인 발언에서 감지되는 노예의 언어 속에서도 사태의 본질을 잘 드러내준다.

대회의 풍경은 재미있었다. 중국인들은 거의 듣지 않았다. 종종 귀를 기울이다가도 대개는 탁상 위의 잡지를 읽거나 신문을 읽기도 했다. 실로 자유로운 태도다. 관심도 없고 걱정도 없다.— 오히려 부러웠다. 만주국 대표는 모두 “지금은 가열한 결전 운운” 하는 천편일률적이고 지루한 연설뿐이었다. 중국 측은 문화인의 생활의 궁핍함을 어떻게든 했으면 좋겠다는 실제적인 제안이 많았다. 일본인은 죄다 원고를 갖고 연설을 했다. 연설이 별로다. 중국인은 메모만 갖고 연설을 했다. 몸짓이 풍부하고 훌륭한 연설들이었다(高見順 1944年 9月 1日).

중화민국의 활약이 적극적으로 요망되었던 제3회 대회의 풍경을 지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글은 당시 일본의 신문과 잡지에 요란하게 실렸던 대회 참석자들의 천편일률적인 수행적 발화의 이면에 어떤 갈등이 은폐되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즉 중국인들은 패전에 입

박한 일본의 절박함 따위보다는 먹고 사는 일이 훨씬 더 절실했던 것이다. 실제로 ‘물자절약운동’으로 인한 “용지 관계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작가들도 차차 생활의 안정을 잃게 되어 진정으로 轉職을 고려하고 있”는 가 하면 잡지의 분량이 줄어들면서 원고량도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단행본 출판도 여의치 않았던 저간의 사정은 작가들에게 있어 “사활의 문제”(俞鎮午 1943年 10月, 92)였기 때문이다.

“대체로 상대편은 책임의 소재가 일본만큼 강하지 않았고”, “중국 측의 열의가 충분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제3회 대회 의장 나가요 요시로(長與善郎)의 불만 역시 바로 여기에 있었으며, 이런 점에서 대회 참석자의 대다수가 ‘일본정신’에 입각한 ‘동양의 이상’을 반복하여 주창했다 손치더라도 “보다 진정으로 실질적인 마음과 마음의 결합을 요구하고 싶었”(『文學報國』, 1945年 1月 1日)던 쪽은 오직 일본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일본문학보국회’의 말석에 이름을 올려놓고 ‘대동아전쟁과 우리의 결의’라는 제목의 선언문까지 작성했던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가 ‘대동아문학자대회’의 참석 요구에 대해 “공무원 같은 환영행사”로 치부하고 거듭 사절하면서 “농락당하는 지나문학이 아프다”(다케우치 요시미 2011, 64-66)고 토로했던 것은 비단 하나의 특수 사례가 아니라 오히려 시대의 이면에 은폐된 일반적인 풍경이었던 것이다.

Ⅲ. ‘대동아문학자대회’의 전제: ‘국민문학’에서 ‘대동아문학’으로

‘문단신체제운동’에 호응하여 『文章』과 『人文評論』이 발전적 해소와 통합이라는 외피를 쓴 채 『國民文學』으로 통폐합된 것은 1941년 10월의 일이다. 이는 ‘조선문학의 혁신’이라는 명분하에 서구적 “문화주의의 청산과 국가주의로의 전환”이라는 “2대 목표”(崔載瑞 1943, 82)로 조선문학의 존립방식을 완전히 전환하라는 일본 경무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처음 『國民文學』은 연4회 ‘국어관’, 연8회 ‘언문관’으로 간행될

계획이었으나, 1942년 5·6월 합병호부터 완전한 ‘국어잡지’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國民文學』의 체제 전환을 가져왔던 결정적 계기는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었고, 거기에 수반한 조선인 징병제 실시와 ‘국어보급운동’은 『國民文學』 잡지의 탄생 기반이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國民文學』은 연4회 국어판, 연8회 언문판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당시의 정세에 대처해왔던 바이나, 그것은 과도적 체제로서, 전면[全頁] 국어 문제에 부딪혀야만 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예상된 일이었다. 단지 그 시기를 결정한 것은 징병제 실시 준비에 수반하여 당국과 병행한 총력연맹의 국어보급운동이다. 지식계급을 상대로 하는 잡지이고, 또 지식계급은 국어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잡지는 가장 선도적으로 용어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사명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國民文學』은 5·6월 합병호부터 전면 국어 잡지로 재출발하게 되었다(崔載瑞 1943, 85).

사후의 관점에서 볼 때 1942년 8월에 쓴 최재서의 「朝鮮文學の現段階」는 이 시기 조선문학의 존립방식에 대한 그의 고민을 잘 보여준다. ‘일본문학보국회’의 결성 단계에서부터 구메 마사오가 ‘대동아문학자대회’를 집중적으로 기획했던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그와 시기적으로도 일치하고 있는 이 글의 내용은 ‘대동아문학’에 내재한 조선문학의 쟁점과 현안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완전한 ‘국어 잡지’로의 전환을 요구한 일본 경무국에 대해 당시 조선 문단에서 “그것은 일본문학이지 조선문학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空名論에 지나지 않는다”(崔載瑞 1943, 87)는 ‘조선문학 절망론’이 불거졌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이 시기에 최재서는 영국문학과 스코틀랜드문학의 관계를 운운하면서 ‘대승적 문화의식’으로 조선문학의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조선문학 절망론’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외지문학’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일본문학 체제 역시 재조정되어야 할 것을 요청했다. 이때 최재서가 취한 논리란 조선의 독자성은 단번에 사라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문학이 일본의 ‘국민문학’에 편입되어야 한다면 오히려 조선의 독창성과 창조성을 발휘함으로써 일본문학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야만 조선인 작가도 ‘국민적’ 입장에서 창작할 수 있으며, 그럴 때야말로 오히려 “일본문학은 한편으로는 순수화의 도를 점점 더해가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확대의 범위를 점점 넓혀갈”(崔載瑞 1943, 95)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논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이 논리가 최재서의 본심이었는가의 문제는 차치하고, 적어도 창작의 수단인 조선어가 완전히 폐기된 이 시점에서 최재서는 조선문학의 독창성과 특수성, 그리고 조선 문인의 개성과 창조적 능력에 기반을 둔 예술의 보편성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재서가 이 시기를 “조선문학 전환론의 초기”(崔載瑞 1943, 82)로 구분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대동아문학자대회’가 개최된 이후 ‘문화의 옹호자’를 자임했던 최재서는 자신의 존재기반이었던 영문학과와의 결별을 선언함으로써 일본 고전세계를 통해 천황에 귀의하는 문학, 이른바 「받들어 모시는 문학(まつろふ文學)」을 채택하게 된다. 더 이상 “합리주의적 문화주의는 이제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받을 자라는 사실”(崔載瑞 1941, 194)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이때서야 비로소 최재서는 ‘조선문학의 절망론’을 승인한 셈인데, ‘대동아문학자대회’ 이후 이른바 ‘국민문학 작가들’이 일본 국학을 통한 ‘일본정신’을 강조하면서 징병제를 독려하고, 또 ‘대동아공영어’로 승격된 ‘국어’ 보급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던 것은 ‘대동아전쟁’의 위기 속에서 ‘국민문학’을 수립하기 위한 분분한 논의와 방법론의 탐색이 더 이상은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국민문학’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구구하고도 애매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대동아전쟁’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었던 일본에게 이제 식민지 조선의 ‘국민문학’은 오직 ‘대동아전쟁’에 복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허용되었던 것이다.

‘대동아전쟁’을 무조건적인 승리로 이끌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의 밀집된 총력을 필요로 했던 일본은 당초 1950·60년대에 가서나 실시할 예정이었던 ‘조선인 징병제’를 앞당겨 실시했고, 그에 따라 일반 민중에게 요원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국어보급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징병제가 조선인도 일본인이 될 수 있다는 시혜적 성격으로 선전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팔굉일우 일본의 조국정신을 십억의 민중에게 철저히 미치게”(兪鎮午

1943年 3月, 52) 하기 위한 ‘국어’ 보급은 ‘대동아정신’을 강화한다는 문맥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일본 국민이 아니면 실현 불가능한 목표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국체’의 본의를 깨닫게 하는 정신적 수단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는데, 가령 일본적 전통을 기반으로 한 국학의 보급이나 일본 고대 수도의 문물들을 견학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 이는 징병제 실시에 수반된 ‘내선일체’ 이데올로기에서 보다 깊고 확장된 이념 동원의 방법으로서, 제도적 사회규범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양과 연성(鍊成)을 통한 개인의 도덕규범의 차원으로까지 내면화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식 계몽과 교육보다 더욱 진전된 강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내선일체’의 슬로건 대신 ‘도의조선(道義朝鮮)’이 새로운 슬로건으로 등장한 데는 바로 이런 배경이 놓여 있었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게 지적되어야만 할 사항이다.

최재서: 그동안에는 표어로서 내선일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총독이 오시면서 도의조선, 그리고 황도정신의 철저, 즉 국체의 본의에 투철한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고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민중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킨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중략)

최재서: 수준이 아주 낮은 민중에게도 내선일체라고 하면 잘 모르면서도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 것 같았고, 또 그런 점에서 민중 지도 역시 다소 쉬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략) 그런데 도의조선의 확립, 국체 본의의 투철한 주지에 대해서 보자면, 지식계급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준이 아주 낮은 계층에게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실은 저희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다 가타시: (중략) 대체로 내선일체라는 큰 슬로건에 의해 형식적으로는 다양한 일들을 계속 단행해왔던 셈이었지만, 이번에는 차차 내용을 정비해가는 단계가 되었다고 봅니다. 내선일체라고 하면, 가령 교육의 보급이라든가 지원병을 비롯한 징병문제 등 당면 정책문제도 있었는데, 그것으로 완전히 형식이 만들어졌고 또 표면화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은 국책으로서 명료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천 4백만 반도 민중들이 모두 그 명료해진

국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광범위한 문제에 나서서 국제 본의의 투철한 주지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영혼이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도리어 질적으로 깊고 높아질 수 있는 필연적인 발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재서: 그게 당연히 발전한 단계의 형태겠지요. 하지만 아무래도 요점은 그것을 어떻게 투철하게 주지시킬 것인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국제의 본의를 설명한다 해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란 생생한 이야기, 즉 역사상에 나타난 일본정신을 가장 잘 활용해 실제 인물에 대한 전기를 재미있게 써서 읽혀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중략)

최재서: (중략) 만주사변, 지나사변, 그리고 이번 대동아전쟁이라는 식으로 보면, 대동아전쟁 이후 1년이 만주사변 이후 10년보다 문단의 움직임—전환이 빨랐습니다. 다시 말해 그런 속도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것들을 읽어보거나 조사해보면 그에 대해 대략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동아전쟁 이후 확실하게 미·영을 격멸해야 한다는 것이 신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8일 그 이전에도 미·영을 반드시 쳐부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신념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징병제 실시, 이는 문단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반도인’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으로서 ‘국어’에 의한 국민문학의 건설이라는, 이 세 가지를 명료하게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대동아전쟁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國民文學』 1943年 1月, 77-78).

여기에는 ‘대동아전쟁’이 가져온 이념적 사안들을 조선 문인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난점이 매우 솔직하게 피력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들이 가장 난처해했던 점이 ‘문화의 전사(戰士)’ 역할을 자임한 문인들 스스로가 ‘일본정신’에 입각한 신념을 체득할 수 없다는 데서 온 불안감이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인 징병을 독려하는 자리에서는 오직 자신을 완전히 버릴 것⁸⁾만을 반복해서 주문하고, ‘국어’ 문제에 있어서는 조선과 일본이 각각의 선형적 입장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반복되

고 있었지만 결국은 해소되지 못했다. 심지어 일본어 창작이 가장 왕성했던 김사량⁹⁾과 장혁주¹⁰⁾ 그리고 이광수¹¹⁾조차 ‘국어’ 문제에 있어서 곤란을 토로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결국 자신을 버리는 일도 감행하지 못하고 조선과 일본 그 어느 쪽에서도 ‘국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들이 최종적으로 향했던 곳은 현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막연한 고대의 세계였다. 즉 ‘국민문학’ 성립단계에서 조선문학은 ‘동경의 지방문학’으로서의 일익을 자임했던 데 비해, “방향과 목표가 결정된 ‘대동아문학’은 토론하고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하여 매진하기만 하면”(『每日新報』 1942年 11月 18日) 그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선적 특수성’과 같은 내용은 언급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대동아공영권’의 시좌에서 “일본은 이미 조선을 특수하게 다루지 않게 될 정도가 되었”(崔載瑞 1943年 10月, 140)기 때문이다. 요컨대 ‘일시동인’하의 ‘팔굉일우’로 표상되는 ‘대동아공영권’에서 “일본인이란 천황에 봉사하는

8) 대표적으로 1회 대회 석상에서 이광수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자신의 전부를 천황께 바치는 것이 일본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또 천황께서 자비를 베푸는 것을 황도라고 합니다. 천황께는 이것이 황도, 우리 君臣에게는 臣道입니다. 자기를 바치고 자기를 버리는 이 정신이야말로 인류가 살아가는 길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또 완전한 진리에 가까운 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 일본인으로서 우리의 목표는 米英처럼 국가의 강대함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인류를 완전히 구제하는 데 있습니다”(『日本學藝新聞』 1942年 11月 5日).

9) “내지어로 쓰라고 하나 실제 내지어로 예술적 형상이 가능한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음이 사실이다”(金史良 1973, 27).

10) 후루야 쓰나타케(古谷綱武): 제가 여기에 와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문제는 그 무엇보다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라는 것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그것을 정말 반도에 침투시키는 일이 문학자가 해야 할 첫째 임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 내지를 떠나기 전에 반도 작가의 작품을 좀 살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어’를 받아들이는 방식, 사용방식이 매우 소극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중략)

김중환: 그러나 조선에서의 ‘국어’문제, 언어문제는 정치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장혁주 씨가 언젠가 조선에 ‘국어’를 보급시키는 데 있어서 결코 조선 냄새가 나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실은 좀 당황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들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중략)

다테노 노부유키(立野信之): 장혁주 군조차 아주 난처한 모양입니다. 『國民文學』 1943年 8月, 18-20.

11) 香山光郎: “사투리란 둘째 문제고, 무엇보다 국어로 소설을 쓰고자 하는 것 자체가 무모하니까요.” 『학병 권유차 도쿄에 간 최남선·이광수의 ‘도쿄대담(東京對談)’』, 『조선화보』, 1944년 1월(김윤식 2007, 424 재인용).

국민”(崔載瑞 1944年 4月, 6)이며 “자신의 모든 것으로 천황을 받들어 모시는 것이 일본정신”(李光洙 1941年 12月 16日)이라는 최종심급으로 표상될 때, 결국 최재서의 ‘받들어 모시는 문학’이란 이른바 ‘대동아문학’의 다른 이름이었던 것이다.¹²⁾

IV. ‘대동아문학’의 사상적 지표: 고대 표상의 음화(陰畵)

‘신체제’하 문인 동원의 전사(前史)라 할 수 있는 ‘황군위문조선작가사절단’(1939.4.15.)이 문단의 ‘자발적’ 총의를 모아 ‘전쟁문학’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¹³⁾ 또 ‘국민문학’의 표본을 정립하기 위해 ‘내선일체’를 소재로 한 작품을 쓰거나 ‘문인보도연습’을 시행하고 ‘문예순회강연회’ 등을 실시하면서 방법론적 모색을 꾀했던 시기에 비해, ‘대동아문학’은 ‘성전’ 완수를 위한 ‘대동아정신’을 내면화하는 이데올로기의 구축, 즉 ‘정신 익찬’을 도모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금회의 대회는 명실공이 결전대회이고, 각국 대표가 적개심을 충만히 한 데서 피어오른 필승의 신념을 공고히 하고, 열심히 협의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는 것은 실로 서로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이 가열

12) 1930년대 말부터 사용된 ‘국민문학’이라는 용어는, 중일전쟁을 전후하여 대륙병참기지 역할을 떠맡은 조선으로서는 전쟁 수행을 위한 선전도구로서의 문학과 총후의식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전쟁문학’, ‘총후문학’, ‘애국문학’, ‘보국문학’ 등으로 불리다가 1940년 10월 ‘신체제운동’을 계기로 ‘신체제문학’으로도 불렸다. 이러한 명명법은 ‘국책문학’, ‘시국문학’, ‘선전문학’ ‘國事문학’ 등으로 그때그때의 형편과 필요에 따라 그 의미가 가감되면서 사용되었다. 이후 1941년 12월 8일 ‘대동아전쟁’의 개시와 병행하여 1942년 5월 26일 ‘일본문학보국회’이 결성되고 같은 해 11월 ‘대동아문학자대회’가 개최되면서 ‘대동아문학’, ‘황도문학’ ‘결전문학’ 등으로 불렸다. 이러한 명명법을 총괄하여 이른다면 ‘국민문학’이 합당할 것이다. 일종의 참여문학적 성격을 지닌 이 용어는 오늘날 그 의미가 더욱 축소·제한되어 반민족적 부역행위를 뜻하는 ‘친일문학’으로 통칭되고 있다.

13) 이에 대해서는 이해진(2008) 참조.

찬 戰局에 즈음에 戰線의 황군 장군의 大戰果와 함께 대동아문학자대회도 높이 개가를 올렸습니다. 이 문학적 대전과는 다시 거론할 것도 없이 대동아공동선언의 도의적 정신을 구현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 정신적 전력 증강은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古丁 1944年 11月 26日).

‘대동아문학’이 일본의 전통세계와 고대 및 국학을 지속적으로 차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실제로 그것은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 ‘정신 익찬’을 위한 ‘대동아문학’의 주요 요건으로서 채택되고 주문된 것이었다.

대동아문학자대회도 세 번째 개최를 하니 이제는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이번 모임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차례차례 앞 다투어 제의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보자면 모두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공영권 내의 고전을 연구하여 각 민족의 공통되는 우주관과 인생관을 파악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대동아문예원’을 세워 도쿄에 본부를 두고 각 지역마다 지부를 두어 서로 약 1년 동안 자기 고장의 문학자 5·6명을 파견한 후 상대 민족의 문학을 연구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셋째로는 각 민족의 고전 전서(全書)를 편찬하자는 것이었다. 우선 의견을 제출한 것일 뿐이어서 어느 정도의 실현을 보게 될는지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각 민족이 서로 상대방의 고전을 연구하자는 것은 대회의 근본 성격으로 보아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연구를 계속하게 된다면 거기서는 반드시 조그만 ‘민족’이라는 둘레를 넘어 동양 사람으로서 공통되는 인생관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每日新報』 1944年 12月 11日).

‘대동아문학’의 명분에 걸맞도록 “각 민족이 서로 상대방의 고전을 연구하자”는 제안은 원천적으로 『古事記』나 『萬葉集』과 같은 일본 고전을 ‘대동아’의 민중이 체화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진전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여기서의 일본 고전이란 “일본의 전통, 즉 일본 민족의 가치관이나 그 사고방식, 표현양식 등이 가장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는, 이를 테면 일

종의 저수지로서 오늘날의 국민에게 정신적 수분을 공급해 주”는 “국민 고전”(崔載瑞 1943, 195-196)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중 앞에서 성격에도 맞지 않는 정치적 연설을 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은 아닌지, 또한 언제까지나 歷然한 증거로 남는 문자로 엮어서 이후 정치적으로 아첨하는 경박한 무리로 사람들에게 조롱이나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던”(牧羊 1943年 9月, 64) 조선 문인들이 진정한 ‘대동아’ 공동의 유산으로서 일본 고전에 침잠하는 일이란 그리 녹록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나는 이와 같이 옛 종교나 미술을 진열한다든가 해설한다든가 해서, 곧 새로운 대동아문화가 생긴다는 따위의 안일한 생각은 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동아 제 민족의 민족적 창조력이 부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경우 동양의 문화유산은 공통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다(崔載瑞 1943年 10月, 138).

따라서 『고사기』, 『일본서기』, 『만엽집』이 인용되고 마부치(眞淵), 노리나가(宣長)가 새삼 거론되며, 혹은 신국론(神國論)이나 팔굉일우나 내선일체가 주장되었다 하더라도, 요컨대 그것은 문학론의 전개로서 이론적으로 거기까지 갔다는 것뿐이지 그 저변에 혈액적인 신념과 정열이 수반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말할 것도 없이 이 경우에도 소수의 예외는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조선 문인은 그 주장과 신념 사이에 끼어있는 간격(감히 괴리라는 말하지 않겠다)을 별안간에 어쩔 수도 없었고, 그것을 메우는 속도와 시국 진전의 속도가 달라서 거기에 약간의 번민도 있었던 셈이다.

나는 감히 번민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향해야 할 목표의 지성적 이해, 이를테면 우리가 현재 처해있는 감성적 습관과의 불일치 내지 간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崔載瑞 1944年 4月, 4).

이러한 조선 문인들의 번민과 고뇌는 일본으로서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바였고, 그런 이유에서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석한 이광수는 하야시 후사오(林房雄)와 가와카미 데쓰타로(河上徹太郎)에게 이끌려 ‘술잔의 충

공격'을 받으면서 속내를 드러내 보일 것을 강요받기도 했다(이광수 2007 참조). '대동아전쟁'이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면서 식민지의 '정신 억찬'이 거듭 강조되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으며, 그것은 문인의 '자기수양'의 문제로 이어졌다. 예컨대 '황국신민서사' 봉독과 궁성요배 및 신사 참배 등 황민화의 규율이 조선인의 일상에 관철되었던 것처럼, 교토나 나라와 같이 황릉, 신궁, 신사 등이 자리한 일본의 고도(古都)와 성소(聖所)는 천황제 과시주의 문화적 표상으로서 '대동아정신'을 체득하기 위한 실천의 장소이자 수양의 공간으로 자리매김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도쿄에서 개최된 제1회와 제2회 대회를 전후하여 '대동아문학자'들은 미리 기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나라, 교토, 도쿄 등 이른바 '삼경(三京)'의 성소순례와 참배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다.¹⁴⁾ 메이지 이후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창안된 고도는 일본의 전통으로 상징되는 역사와 전통 문화의 깊이를 선진하는 전근대의 특권적 장소로서, 도쿄의 근대 문물이라는 상징성과 결합하면서 식민통치 이래 전형적인 '내지시찰'의 상례코스였다. 그러나 '대동아전쟁'을 전후로 해서는 '시찰'의 코스로서보다는 교토, 나라 등의 고도 순례와 신궁, 신사 등의 성소참배의 성격이 보다 두드러지면서 이세신궁, 메이지신궁, 야스쿠니신사 등을 중심으로 한 참배 여행이 '대동아인'의 '국체' 인식을 위한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었던 것이다(차승기 2010, 88-89). 이에 따라 일본의 고도는 고대의 한반도와 '깊은 인연'을 맺었던 '내선일체'의 근원적 공간으로, 그리고 도쿄는 일본의 수도가 아닌 '대동아'의 수도라는 공동의 공간으로 탈바꿈되었다.

이번 동경 가기는 흡사 처음으로 동경을 보는 것처럼 내겐 신선했다. 그것은 동경 그것의 성격이 변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 자신의 심경이 변했기 때문이기도 하리라. 동경은 시방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 대동아 공영권의 수도다. 천황의 권위는 대동아 전역에 빛을 입히고 있다. 동경의 정치력, 문화력은 아시아 민족들의 정치와 문화의 원천이며 원동력임을 그 누가 부정하랴. 나는 이런 동경을 비로소 본 것이다(이광수 2007, 117; 賓田隼雄 1942年 12月, 21 참조).

14) 각 대회의 고도 견학과 참배여행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부록1> 참조.

“동경은 모던화되었어도 교토, 나라 오사카에는 지금도 여전히 옛 일본의 전통을 많이 맛볼 수 있다. 진짜 일본의 모습을 보고자 하면 간사이(關西)로 오라”(이광수 2007, 129)는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의 강연에서와 마찬가지로, 식민지 조선에서도 “일본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방인 까닭”에 “내지의 전통을 알고 내지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라를 한 번 볼 필요가 있”(李石薰 1942年 1月, 116)다고 선전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조선인이라는 선협적 사실을 초극하지 못한 채 ‘대동아인’이 될 수 없었던 불완전한 조선인의 신념을 정신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효과를 겨냥하고 있었다.

이세(伊勢)의 고타이신궁(皇大神宮)에서 참배한 후, 후타미가우라(二見浦) 해변에 있는 여관에서 하룻밤 조용히 생각하는 사이에 철(주인공-인용자)은 방황의 구름을 걷어내고 밝은 신념으로 한 걸음 비약하는 자신을 느꼈다. 요컨대 그것은 솔직한 직감에서 나온 일본에 대한 신념으로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즉 내궁(內宮)의 저 비할 바 없는 신성함은 일본 국체의 존엄함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모든 신역(神域)과 산하도 그렇지만, 한 점의 어둠이 없는 밝은 처녀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국토는 유구한 삼천 년 동안 한 번도 외적에게 짓밟히지 않은 고귀한 역사의 상징인 것처럼 철에게 느껴졌다(牧羊 1942年 5月, 159).

하지만 일본의 볼모로 붙잡혀온 이광수(김윤식 2007, 114)의 참담한 심정이 쇼토쿠 태자(聖德太子)에게 법화경을 강독했던 백제의 혜자(惠慈)와 일본에 불법을 전한 고구려의 혜충(惠聰), 그리고 호류지(法隆寺)의 벽화를 그린 담징(曇徵) 등 고대 한반도의 대스승들과 오버랩되면서 문화적 자긍심으로 치환될 때, 일본 고대에 대한 역사적 상상력은 곧바로 일본에 의해 ‘대동아공영’의 사상적 원리로 전도됨으로써 식민지/제국의 문화적 우월관계 역시 평행선을 걷게 된다.

긴메이(欽明) 천황 시대에 일본과 백제의 교통은 주지하는 바로서, 당시 백제에 대한 일본의 원조는 무력에서부터 산업경제에까지 이르렀

고, 군량은 물론 농산물의 종자까지 공급했다. 백제는 전래된 대륙문화를 힘써 전하여 일본의 호의에 보답하려 했다. (중략) 일본에 대한 백제 궁정의 감사의 마음은 성왕(聖王) 23년에 장육불(丈六佛)을 만들었던 것처럼 긴메이 천황의 성수만세를 기원하는 것이었고, 30년에는 불상 경전 헌납을 비롯하여, 이후 백공(百工)·기예를 보내 대륙문명을 소개했으며 그로 인해 우리 아스카문화가 개화하는 동인이 되었다. (중략) 백제는 역사상으로 지상에서나 문물 면에서도 그 흔적이 사라져버렸다. 가령 오늘날 백제의 고도는 기껏 약간의 유물과 와전(瓦全)이 조금 남아있는데, 기록에 나타난 우리의 호류지(法隆寺), 호키지(法起寺), 호린지(法輪寺) 공인(工人)의 적지 않은 수가 백제인이다. 백제인은 반도에서 최고의 문화인이었다. 그들이 전한 문화가 일본에 와서 모국, 본토에서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개화했다는 것은 오늘날 세계 예술과 호키지를 비교할 때 분명히 교시되는 바이다(保田與重郎 1987, 39-41).

돌이켜보면 아스카시대에는 많은 조선인(특히 백제인)이 도래하여 쇼토쿠 태자의 두터운 신망 하에 아마토민족과 함께 노력하여 비할 데 없이 장려한 불상과 많은 공예품을 만들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미술품은 중국민족 및 조선민족의 협력과 따뜻한 신애의 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우리 선조는 이러한 포용력과 타민족 문화를 섭취하는 활발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龜井勝一郎 1971, 150).

이렇듯 조선과 일본의 상반된 고대에 대한 해석과 상상력은 ‘대동아문학자’의 성소순례와 참배여행이 정신적 비약으로 이어진다는 실천의 문제와 결합될 수 없었음을 암시한다. 더욱이 조선인은 누구나 일본이 될 수 있었지만, 그것은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폐쇄적 성질의 것이었다. 즉 “신민으로서의 임무에 따라 죽음을 최대의 기쁨으로 간주하는 인간”(平沼文浦 1944年 5月, 13)이란 현실에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창안되어야만 하는 존재였던 만큼, 그것은 처음부터 이념적 강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요컨대 ‘대동아문학’의 정신적·사상

적 지표는 일본의 고대 및 고전이라는 지정학적·문화적 상상력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만세일계’의 단절 없는 순수한 ‘황통(皇統)’과 유구한 시간의 역사를 공간적으로 전유하는 ‘팔굉일우’의 장소에 천황의 ‘일시동인’으로 평등한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일이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몽상에 불과한 것처럼, 삶과 죽음을 교환함으로써 조선인이 일본인이 된다는 것 역시 부질없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V. ‘대동아문학’의 가능성과 의의

근래 반도의 ‘국어’ 작품을 일별해보면 일본 내지의 이른바 중앙문단 추수, 모방, 복제품이 매우 많은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특히 시국색이 있는 것이 그러하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그 문학작품의 근원이 되는 마음가짐에서는 자신을 깊이 파고들으로써 진정한 황도의 위대한 흐름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일본문학의 직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본래 필요불가결한 일이겠지만, 그 깊은 眞體의 체득 없이 그저 형해의 말절을 추수, 모방한다는 것은 문장 직인의 일이지 문학작품이라는 이름에는 걸맞지 않는다고 본다(田中捨彦 1944年 5月, 25).

이처럼 세 차례의 ‘대동아문학자대회’를 진행하면서 ‘대동아문학’을 위한 슬로건이 반복적으로 주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44년 5월의 시점에서조차 일본이 만족할 만한 ‘대동아문학’은 양산되지 못했다. 수많은 논의들 속에서 ‘국어’를 매개로 하고 ‘일본정신’을 중추로 하여 ‘대동아전쟁’을 무조건적인 승리로 이끌기 위해 많은 문인들이 고군분투했으나, 기껏해야 전쟁 슬로건을 ‘호신부(護身符)’처럼 사용한 데 그쳤을 뿐 문학자의 영혼이 부재한 채 의식의 과잉만 남발했을 따름이라는 것이 ‘대동아’의 맹주 일본 측의 반응이었다. ‘대동아공영권’의 중추국은 ‘日滿華’, 즉 일본, 만주, 중화민국이었지만 ‘대동아전쟁’이란 “동아 제 민족의 결의가 오늘날 어떠하냐”(다케우치 요시미 2011, 60)에 달려 있는 문제였던 만큼 식민지/제국

관계에 있어서 “호식(互識)”(周越然 1943年 8月 25日)의 부재는 결국 아시아 민족의 해방과 공존공생이라는 ‘대동아공동선언’의 이념을 상호 배반으로 이끌었다.

‘대동아공영’이라는 광역질서는 서구와의 전쟁을 매개로 한 군사적 의미에서만 실현 가능하며, 더욱이 일본을 중심핵으로 한 동심원적 확장은 일본 민족주의가 일본 국가를 경유하여 식민지 전체에 작동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 제국주의로 귀결될 뿐 동아시아의 지역적 통합원리로 운용될 수는 없었다. 고대 로마제국은 보편적인 법에 기초해 있었기 때문에 이민족을 정복한 이후 그들에게도 동일한 법을 적용함으로써 통합적 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던 데 반해, 네이션-스테이트(nation-state)의 확장으로 형성된 제국은 자국 국민의 능동적인 동의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이민족을 정복할 경우 통합보다는 동화를, 정의보다는 동의를 강요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그것은 독재로 변질될 수밖에 없으며, 또 그러한 토대에서 피정복 민족의 진정한 동의를 얻어내는 일이란 결코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다. 즉 네이션-스테이트가 정복자로 등장하면 언제나 피정복 민족의 민족의식과 주권에 대한 열망은 고취되기 마련이었고, 따라서 제국을 건설하려는 모든 시도는 좌절되고 말았다. 요컨대 전제정치는 네이션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민족의 지배는 성공할 수 있지만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국가제도를 파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아렌트 2006, 271-275 참조). 이런 점에서 일제 말 ‘대동아공영’의 논리에는 주체로서의 아시아에 대한 사유가 결락된 채 ‘대동아’라는 개념의 과도한 중층적 결정성이 내재해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대동아문화자대회’의 공소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다케우치 요시미조차 이러한 결락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에서 주체로서의 아시아의 문제는 현재적 맥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조선을 멸하고 중국의 주권을 침략한 난폭함이 있었지만, 어쨌든 일본은 과거 70년 동안 아시아와 함께 살아왔다. 거기에는 조선과 중국과의 관계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자각이 있었다. 침략은 잘못된 것이지만 침략에는 연대감의 왜곡된 표현이란 측면도 존재한다. 무관심하게 남에게 맡겨두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건전하기까지 하다(다

케우치 요시미 2004, 205).

패전 후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을 완전히 포기함으로써 아시아와의 단절을 감행했다. 이후 일본은 또다시 서구화를 선택함으로써 아시아 주변 국가들을 외면했으며, ‘대동아문학자’들에게는 시효 없는 치욕이라는 잔인한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이는 ‘대동아전쟁’의 최고 책임자인 천황의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일억총참회(一億總懺悔)’라는 일본 국민의 공동 책임으로 떠맡겨진 탓에 결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형국이 되어버렸다는 점에서 더 문제적이다.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가 ‘무책임의 체계’라고 지칭했던 이 문제는 더 나아가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전쟁의 피해자라는 의식을 양산하기도 했다. 일본의 ‘국체’가 nationality의 역어이듯이, 국민통합의 이데올로기적 기구라 할 수 있는 천황제가 각각 서구화와 일본회귀라는 극단적 모순을 흡수하는 장치로서 지속적으로 기능하는 한 현재적 의미에서의 아시아 공동체 프로젝트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아시아와 서양이라는 이항대립의 개념적 역사 속에서 한 주권국가가 자신의 주권을 폐기하지 않는 한 ‘아시아의 시대’가 표상하는 상상의 공동체는 공소한 논의에 불가하다는 것, 과거 ‘대동아문학’은 식민지/제국의 양방향에서 결코 승인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부록 1> 대동아문학자대회의 견학 일정¹⁵⁾

제1회 대동아문학자대회의 여정	
1942년 10월 7일	경성 부민관 식당에서 '조선문인협회' 주최로 장학회 개최
10월 31일	시모노세키(下關)에서 참가자들이 합류한 후, 22시 다시 '사쿠라'로 시모노세키 출발
11월 1일	16시 40분 도쿄 도착 후, '일본문화의 진면목을 인식시킨다'는 취지에 따라 황거에서의 궁성요배 및 메이지신궁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유시마세이도(湯島聖堂) 방문
11월 2일	야스쿠니신사 참배 후 오전 10시부터 3시 30분까지 메이지신궁에서 '국민연성대회'와 신문사 견학, 18시 쓰키지(築地)의 '신키라쿠(新喜樂)'에서 아사히신문사의 축하연
11월 3일	메이지신궁 참배 후 '일본문학보국회' 주최 오찬회, 13시 제국극장에서 개회식, 토호(東寶) 주최 환영공연, 18시 대동아회관에서 정보국 주최 환영대만찬회(이후 쓰키지(築地)에서 일본 및 중국대표단과 합류한 연회)
11월 4일	오전 10시 대동아회관에서 첫 번째 문학자회의(오전/오후) 후 아타고산(愛宕山)의 '사가노(嵯峨野)'에서 가이조샤(改造社)의 초대 연회
11월 5일	오전 10시 두 번째 문학자회의(오전/오후) 후 가부키좌(歌舞伎座)의 초대 연회
11월 6일	쓰치우라(土浦)의 '소년항공대훈련소'와 가스미가우라(霞ヶ浦)의 '해군항공대 견학 및 가스미가우라신사 참배 후 비행장에서 '제로센' 견학, 오후 6시 아사히신문사 좌담회
11월 7일	18시 좌담회 (하야시 후사오의 권유로 이광수 연회 ¹⁾)
11월 8일	문부성미술전람회[文展] 관람 후 황실[帝室]박물관 견학, 도쿄일일신문(東京日日新聞) 오찬회 후 노(能) 관람, 야마노우치(山ノ内)회관의 축하연, 후루이치(古市)에 있는 여관 다이안(大安)에서 숙박
11월 9일	오전 9시 도쿄 출발, '쓰바메(つばめ)'를 타고 저녁 무렵 이세신궁 외궁 참배
11월 10일	오전 6시 이세신궁 내궁 참배 후 숙소에서 아침식사, 오사카 지사(知事) 주최의 오찬회 후 13시 오사카 나카노시마공회당에서 강연회, 그 후 폐회식, 나라(奈良)호텔에서 숙박(가와카미 데쓰타로의 권유로 이광수 연회 ²⁾)

15) 이하의 <부록>들은 『文學報國』, 『文藝』, 『毎日新報』, 『國民文學』, 尾崎秀樹, 『近代文學の傷痕: 旧植民地文學論』, 岩波書店, 1991; 川村湊, 『滿洲崩壞: 「大東亞文學」と作家たち』, 文藝春秋, 1998; 오카다 히데오 지음, 『문학에서 본 '만주국'의 위상』, 최정욱 옮김, 역락, 2008; 하타노 세쓰코(波田野節子), 「이광수와 야마사키 토시오, 그리고 기쿠치 칸: 「삼경인상기」에 씌어 있지 않은 것」, 『사이먼SAL』 제11호, 2011; 왕상위엔(王向遠), 「“대동아문학자대회”와 일본의 중국 유희문단」에 대한 간섭과 침투」, 『제6회 식민주의와 문학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10; 광형덕, 「외지」 체험 일본인 작가와 대동아문학자대회」, 『제6회 식민주의와 문학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10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11월 11일	오전 10시 전원이 버스로 가시하라신궁(檀原神宮)참배, 오후 12시 호류지(法隆寺) 견학, 나라(奈良) 지사 초대 오찬회, 가스가(春日)신사와 도다이지(東大寺) 견학(조선대표들은 별도로 가와카미 데쓰타로의 권유로 도쇼다이지(唐招題寺)와 야쿠시지(藥師寺) 견학)
11월 12일	오전 9시 나라 출발, 교토에 도착하여 고쇼(御所) 배관 후 숙소에서 점심식사, 자유 시간에 각자 시내 견학 후 교토부 지사와 시장과의 오찬회, 해산식
11월 13일	오전 9시 55분 교토 출발, 늦은 저녁 시모노세키 출발(중국대표와 만주대표는 이날 조선을 경유하여 귀국길에 오름. 이때 '조선문인협회'는 대표들이 특급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에 총 30여 명이 '차내 좌담회' 개최)
11월 14일	대만대표를 제외한 만몽지 대표 일행 20명이 조선 대표의 안내로 13일 교토를 떠나 14일 아침 부산에 상륙 후 저녁에 경성 도착, 조선신궁 참배 후 고이소(小磯)총독 방문, 4시 30분 경성제대 강당에서 열린 국민총력연맹·조선문인협회 주최 강연회, 저녁 6시 명월관(明月館)에서 조선문인협회 주최 환영만찬회, 조선호텔 숙박
11월 15일	일행은 경성을 구경 후 총독부 방문, 매일신보 주최 반도호텔 오찬회에 참석한 뒤 오후 5시 40분 기차로 서울역 출발
11월 16일	오전 10시 경 평텐역(奉天驛) 도착, 저녁 무렵 신징 도착, 오후 7시 경 '문예가협회' 주최 환영만찬회(화북대표는 귀국길에 오름)

제2회 대동아문학자대회의 여정	
1943년 8월 22일	메이지신궁 외원(外苑)의 수영장에서 '학생수영연성대회' 견학
8월 23일	메이지신궁, 야스쿠니신사 참배
8월 25일	오전 9시 제국극장에서 개회식, 오후에 환영축하회
8월 26일	오전 9시 대동아회관에서 연설회, 오후1시 회의 재개 5시 종료
8월 27일	오전 9시 10분 개회식, 국민의례 직후 3개 분과회로 나누어 회의, 오후 회의에서 '대동아문학상' 수상자 발표 및 수상식, 일만화(日滿華)의 문학 활동 보고, 대회선언문 낭독, 성수만세(聖壽萬歲) 후 폐회
8월 28일	군인회관에서 문예대강연회
9월 1일	특급 '쓰바메'로 간사이행. 9월 1일부터 5일까지 오사카·교토 등지 참관 견학
9월 3일	오사카야사히회관 강연회
9월 5일	9월 5일까지 긴키(近畿)지방 신사참배와 견학을 겸한 순례 후 교토의 미야코(都)호텔에서 해산
9월 8일	조선 대표 귀국

9월 11일	오후 7시 30분 태평동 체신회관에서 '조선문인보국회' 회원과 일반 재청자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표 보고강연회(국민의례→조선문인보국회 간사 데라다(寺田) 사회→쓰다(津田)가 「대동아문학자대회의 사관」이라는 주제로 강연)
--------	--

제3회 대동아문학자대회의 여정	
1944년 11월 6일	경성역을 통과한 일본 문학자들과 합류, 북경을 거쳐 열차를 타고 난징 도착
11월 12일	중덕(中德)문화회관에서 개회식
11월 13일	오전 9시 30분 개회, 오후 4개 분과회로 나누어 토론
11월 14일	오전 10시 개회, 3일간의 대회를 마치고 상하이로 가기 전 쑤저우(蘇州)에서 1박, 쑤저우 주둔 사령부의 전황 브리핑(김기진과 이광수는 5일간 팔레스호텔에서 묵고 이광수 혼자 서울행)

<부록 2> 개회식 식순과 발표자

순서	제1회 대동아문학자대회(1942.11.3. 제국극장)	
1	국민의례	사회: 쓰치야 분메이(土屋文明)
2	개회인사	사무국장: 구메 마사오(久米正雄)
3	인사말	좌장: 시모무라 카이난(下村海南)
4	축사	①정보국 차장: 오쿠무라 기와오(奥村喜和男) ②육군보도부장: 야하기 나카오(谷萩那華雄) ③해군보도부장: 히라이테 히데오(平出英夫) ④익찬회 사무총장: 고토 후미오(後藤文夫, 代讀) ⑤대동아 대신: 아오키 가즈오(青木一男, 代讀) ⑥중화민국 대표: 쉐화런(周化人) ⑦만주국 대표: 구딩(古丁) ⑧일본대표: 기쿠치 칸(菊池寛)
5	自作낭독	①몽고 대표: 쿤푸 치야즈푸(恭佈札佈) ②중화민국 대표: 쉐화런(周化人) ③만주국 대표: 구딩(古丁)
6	일본대표인사	의장: 기쿠치 칸(菊池寛)
7	남방지역 문화 대표들의 메시지 낭독	

8	선서	사이토 류(齋藤瀧)
9	만세삼창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의 선창
10	대회선언문낭독	요코미쓰 리이치(橫光利一)
11	환영만찬회	장소: 대동아회관

순서	제2회 대동아문학자대회(1943.8.25. 제국극장)	
1	국민의례	사회:도가와 사다오(戸川貞雄)
2	개회인사	사무국장: 구메 마사오(久米正雄)
3	황군감사결의	
4	축사	①정보국 총재: 아모 에이지(天羽英二) ②대동아 대신: 아오키 가즈오(青木一男) ③육군보도부장: 야하기 나카오(谷萩那華雄) ④해군보도부과장: 구리하라 에쓰조(栗原悅藏) ⑤흥아총본부총리: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
5	각국 대표 인사	①일본 대표: 요코미쓰 리이치(橫光利一) ②중화민국 대표: 저우웨란(周越然) ③만주 대표: 구딩(古丁) ④몽고 대표: 구송신(包崇新)
6	각국에서의 메시지 낭독	나카지마 겐조(中島健藏)
7	선언문 낭독	요시카와 에이지(吉川英治)
8	만세삼창	다카시마 베이호(高島米峰)의 선창
9	환영축하회	

순서	제3회 대동아문학자대회(1944.11.12. 中德문화회관)	
1	개회경과보고	· 국민정부 감찰원 참사 겸 선전부 부비서장: 沈廖士 · 의장으로 錢稻孫(북경대학문학원 원장)을, 副議長으로 陶晶孫을 추천하여 가결

2	축사	①國民政府行政院周代院長 ②林宣伝部 ③李教育部長 ④일본대사관 岸情報部長 ⑤出淵日本陸軍報道部長 ⑥滿州國駐華大使館代表 ⑦국민정부 대표 ⑧일본대사관 대표 ⑨일본 육군보도부 대표 ⑩만주국대사관 대표
---	----	--

<부록 3> 대동아문학자대회의 회의 내용

제1회 대동아문학자대회의 회의 내용		
1943년 11월 3일	제국극장	오후 10시 개회식
11월 4일 (본회의)	대동아회관	사회: 戸川貞雄 의장: 菊池寛 부의장: 河上徹太郎
		의제 ①대동아정신의 수립: 武者小路實篤, 柳雨生, 齊藤瀧, 香山光郎, バイコフ, 龍瑛宗, 龜井勝一郎 ②대동아정신의 강화 보급: 長与善郎, 爵青, 周化人, 藤田徳太郎, 忒佈札布, 檀光利一, 유진오, 吳瑛, 吉屋信子, 尤炳圻, 吉植庄亮
11월 5일	대동아회관	오전 의제 문학을 통한 사상 문화의 융합 방법
		제안 ①富安風生: 올바른 하이쿠(俳句) 보급을 통해 조용하고 강력하게 살아가는 길을 대동아문학의 토양으로 삼을 것 ②龔持平: '대동아문예협회' 설치 ③細田民樹: 동양정신의 공동 연구 ④張我軍: 문학자와 학술회의 상호 교류 ⑤潘序租(予且): '대동아연구원' 설립 추진 ⑥加藤武雄: 대동아의 소국민 교화 방법 ⑦尾崎喜八·丁雨林·木村毅: '대동아문학대상' 설치 ⑧川路柳虹: 대동아 시인 공동 詞華集 간행 ⑨舟橋聖一: 日滿華 문과대학의 고전 강좌 증강 ⑩高田保: 支那劇의 보존 ⑪山田清三郎·周毓英: 대회의 매년 개최
		오후 의제 문학을 통한 대동아전쟁 완수에 대한 방책

	제안	<p>①片岡鐵兵:新民운동에 대한 협력</p> <p>②小松·芳村香道·張文環:日滿華 작가의 상호 파견</p> <p>③許錫慶:남방권 문학자의 메시지에 대한 답장</p> <p>④辛島驍:重慶에 있는 중국 작가들이 하루라도 빨리 대동아정신을 자각할 것</p> <p>⑤吉川英治은 미국작가와 민중에게, 柳雨生은 남방의 華僑에게, 한 대회위원은 추축진영에 각각 라디오를 통한 호소를 제안</p> <p>⑥中河与一:대동아전쟁을 '신과 유대인의 전쟁'에 비유하면서 사상전의 의의를 강조</p> <p>⑦村岡花子:부인의 입장에서 어린이들이 대동아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언어 문제 제안</p> <p>⑧豊島与志雄: 英米的 어감에서 동양적 어감으로의 전환을 문학적 실천으로 역설</p>
	기타	<p>①高田保·長与善郎·一戶務의 보충설명</p> <p>②高橋健二(대정익찬회 문화부장)·中村武羅夫·三面隆三(정보국 제5부장)의 총괄</p> <p>③戶川貞雄 외 6명이 기초한 '대회선언' 낭독</p> <p>④의장의 폐회인사</p> <p>⑤만세삼창</p>

제2회 대동아문학자대회의 회의 내용		
1943년 8월 26일 (전체회의)	오전 의제	①결전정신 앙양, ②미영문화 격멸, ③공영권 문화의 확립, ④성전 완수를 위해 선행할 문학적 창조안, ⑤ 대동아 이념의 확립과 실천 방법
	오전발표주제	①결전문학 이념의 확립에 대하여(유진오), ②문학자의 제휴(小林秀雄), ③대동아전쟁 승리안, ④황도정신의 삼투, ⑤만주 건국정신의 인식철저, ⑥대동아문학의 중심이념 확립, ⑦화평운동의 철저, ⑧영미문화의 격멸, ⑨필승의 신념
	오후 의제	대동아전쟁의 이념 확립과 실행방법
	오후발표주제	·실천문제 논의 ①조선에 있어서 정병제 실시와 문학운동(최재서) ②대동아문학자 총결기 제안(津田剛)
8월 27일 (분과회의)	제1분과	·위원장 다카시마 베이호(高島米峰) 이하 44명
		주제: 문화교류와 문학의 자매 예술
		①유치진: 「신극운동 촉진: 황도정신의 일상화에 박차」, ②張我軍: 「일만화 영화문학합작사」나 「대동아영화문학합작사」 설립, ③陣綿: 중국인들의 높은 문맹률에 따라 대동아정신을 전파하

		는 데는 연극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 ④吳郎: 황도 정신의 보급을 위해 아동문학과 소녀소년문학을 중시할 것
	제2분과	·위원장 시라이 교지(白井喬二) 이하 40명 주제: 중국문단에 대한 간섭과 침투 ①片岡鐵兵: '반동작가들을 소탕하고 중국문학을 확립해야 한다.' ②一戶務: '아시아문화에 대한 옹호- 重慶지역의 문화사업을 위하여' ③丘韻鐸: '동아문학연구기관' 설립 제안
	제3분과	·위원장 가와다 준(川田順) 이하 41명 주제: 동아시아문학 ①陶亢德: 대동아문학작품을 공동으로 발표할 수 있는 기관 창간 제안 ②章克標: '번역위원회'나 '번역협회' 조직 제안 ③古丁: '대동아번역관' 설립 제안, 현재는 일본문학이 중국문학을 지도 편달하는 상황 ④大內隆雄: '일만문화협정' 체결 제안 ⑤山田清三郎: 정기간행물 <대동아문학>(가칭) 간행 제안
8월 28일 (분과회의)		①토론 결과에 대한 각 분과 대표들의 보고대회 ②'대동아문학상' ¹⁶⁾ 수상자 발표(久米正雄) ③문예대강연회(군인회관): 久米正雄, 井上司郎, 田兵, 柳雨生, 包崇新, 沈啓无, 小林房雄

제3회 대동아문학자대회의 회의 내용		
1944년 11월 12일	개회식	오후 3시 중덕문화회관
	개최경과보고	沈廖士
		錢稻孫을 회장으로, 陶晶孫을 부의장으로 추천 및 가결
	축사	①國民政府行政院周代院長 ②林宣伝部 ③李教育部長 ④일본대사관 岸情報部長 ⑤出淵日本陸軍報道部長

16) '대동아문학상' 수상자와 수상작품 목록은 <부록4> 참조.

		⑥滿州國駐華大使館代表 ⑦국민정부 대표 ⑧일본대사관 대표 ⑨일본 육군보도부 대표 ⑩만주국대사관 대표
11월 13일	오전회의의제 (전체회의)	①어떻게 소설, 시가, 희곡 등으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대동아전쟁에 적극 협조하여 미국과 영국을 몰아내고 대동아 민족의 해방을 이룰 것인가. ②어떻게 동아시아 고유의 문화와 정신을 부흥시킬 것인가. ③어떻게 '대동아선언'의 제3항 '문화에 관한 조항'을 적극 실행할 것인가. ④어떻게 대동아문화의 수준과 민족의식의 수준을 높일 것인가.
	오후회의의제 (분과회의)	제1 분 과 ①중국대표: 대동아신문화 건설을 위한 제안 ②北條秀司: 공영권 내 전 연극인의 교류 분기를 촉할 것 ③百田宗治: 장기적인 시인·문학자의 상호 파견의 구체화
		제2 분 과 ①芳賀檀: '대동아문예원' 설립 제안 ②중국대표: 번역기관 설치, 중일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간행물 발행
제3 분 과 ①土屋久泰: 한시를 중심으로 한 문화연맹의 구체화 ②戶川貞雄: '대동아공동선언'의 원칙에 기해 대동아문학자대회의 정신을 거울삼아 전 대표의 총의로서의 원칙 실현을 맹세하는 성명서 초안 작성 제안 ③만주대표: 차기 개최지를 신징(新京)으로 정할 것을 제안		
11월 14일	오전 10시 개회	선언결의문 기초위원으로 일본 대표 3명(阿部知一, 高見順, 北條秀司) 선임 선언문 낭독: 중국대표 梅娘, 일본대표 火野葦平 제2회 대동아문학상 수상식

<부록 4> 대동아문학상 수상자와 수상작품

제1회 대동아문학상 수상자 및 수상작품(제2회 대회석상에서 수상식)				
일본	차상 (次賞)	오키 아쓰오(大木惇夫)	『海原にありて歌へる』	1942.11. アジヤラヤ出版部/大東亞戰爭詩集
	차상	쇼지 소이치(庄司總一)	『陳夫人』 (제1부 『夫婦』(1940.11)) (제2부 『親子』(1942.7))	1940.11/1942.6, 通文閣刊
	후보	가타오카 텃페이(片岡鐵兵)	『運河』	『東京朝日新聞』 1942. 12.25~1943.5.10.
	후보	다다유 유케이(多田裕計)	『新世界』	1943. 大都書房刊
	후보 사퇴	하야시 후사오(林房雄)	『青年の國』 (제1부)	1942.12. 文藝春秋社刊
만주국	차상	쉬준(石軍)	『沃土』	
중화민국	차상	자오칭(爵青)	『黃金的窄門』	
	차상	유치(予且, 본명潘序租)	『予且短篇小說集』	
	차상	유안시(袁犀)	『貝殼』	
	후보	메이냥(梅娘)	『魚』	
		린룽(林榕)	『遠人集』	
		장순이(莊損衣)	『褐衣詩抄』	
비고	정상(正賞) 없음 수상식: 제2회 대동아문학자대회(1943. 8. 27.) 【선고위원】 久米正雄(심사위원장), 菊池寛, 佐藤春夫, 長与善郎, 中村武羅夫, 大佛次郎, 豊島与志雄, 河上徹太郎, 上司小劍, 加藤武雄, 久保田万太郎, 白井喬二, 里見弴, 辰野隆, 宇野浩二, 長谷川伸, 吉川英治, 新居格, 横光利一, 尾崎士郎, 高村光太郎, 齋藤瀧, 戸川貞雄(간사)			

제2회 대동아문학상 수상자 및 수상작품(제3회 대회석상에서 수상식)				
일본	차상	야리타 겐이치(鑑田研一)	『滿洲建國記』 (1)-(3)	1942.4~1943.8. (新潮社刊)
만주	차상	구덩(古丁)	『新生』	

국 타 이 국	차상	도크 마이 손(ドック マイ・ソッド)	『これぞ人生』	
필 리 핀	차상	호세 에스페란사 크란사(ホセ・エスペランサ・ク ルサ)	『タロン・マリア』	
중 화 민 국	차상	메이낭(梅娘)	『蟹』	
비 고	정상(正賞) 없음 수상식: 제3회 대동아문학자대회(1944. 11. 14.) 【선고위원】 岡田三郎, 伊藤整, 戸川貞雄, 芳賀檀 일본측 최종선고: 1944. 10. 13. 16:00			

| 참고문헌 |

1. 기초자료

『國民文學』, 『綠旗』, 『大東亞』, 『大陸新聞』, 『每日新報』, 『文藝春秋』, 『文學報國』, 『時事新報』, 『新時代』, 『日本學藝新聞』, 『朝光』,

2. 논문·단행본

- 곽형덕(2010). 「‘외지’ 체험 일본인 작가와 대동아문학자대회」. 『제6회 식민주의와 문학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 김윤식(2007). 『일제말기 한국인 학병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 서울대출판부.
- 다케우치 요시미(2004). 『일본과 아시아』. 소명출판.
- 다케우치 요시미(2011). 『다케우치 요시미 선집 1: 고뇌하는 일본』. 윤여일 옮김. 휴머니스트.
- 아렌트, 한나(2006). 『전체주의의 기원 1』. 박진우·박미애 옮김. 한길사.
- 오카다 히데오(2008). 『문학에서 본 ‘만주국’의 위상』. 최정옥 옮김. 역락.
- 이광수(2007). 「삼경인상기」. 『이광수의 일어창작 및 산문선』. 김윤식 편역. 역락.
- 이혜진(2008). 「전쟁과 문학: 총력전하의 전쟁문학 작법」.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5집.
- 차승기(2010). 「제국의 古都, 초월의 기술」. 『상허학보』 제29집.
- 하타노 세쓰코(2011). 「이광수와 야마사키 토시오, 그리고 기쿠치 칸: 「삼경인상기」에 씌어 있지 않은 것」. 『사이間SAI』 제11호.
- 히로마쓰 와타루(2003). 『근대의 초극론』. 김향 옮김. 민음사.
- 高見順(1944.9.1.). 「高見順日記」(1966. 『高見順日記·渡支日記』. 勁草書房).
- 古丁(1944.11.26.). 「文學的戰果」. 『大陸新聞』.
- 龜井勝一郎(1971). 「奈良の秋にローマ哀歌を憶ふ: 廢墟の感想」. 『龜井勝一郎全集 6』. 講談社.

- 吉野孝雄(2008). 『文學報國會の時代』. 河出書房新社.
- 金史良(1973). 『金史良全集 4』. 河出書房新社.
- 陶亢德(1943.11.). 「私と日本」. 『文藝春秋』.
- 牧羊(1942.5.). 「東への旅」. 『綠旗』.
- 牧羊(1943.9.). 「男の征く所」. 『綠旗』.
- 尾崎秀樹(1991). 『近代文學の傷痕: 旧植民地文學論』. 岩波書店.
- 芳村香道(1942.10.29.). 「大東亞文學者會 出席을 압두고」. 『毎日新報』.
- 保田與重郎(1987). 「夫餘」. 『保田與重郎全集』. 講談社.
- 福澤諭吉(1885.3.16.). 「脫亞論」. 『時事新報』.
- 賓田隼雄(1942.12.). 「大會の印象」. 『文藝臺灣』.
- 山田清三郎(1957). 『轉向記: 嵐の時代』. 理論社.
- 俞鎮午(1943.3.). 「‘大東亞精神’強化普及について」. 『大東亞』.
- 俞鎮午(1943.10.). 「扶桑見聞記」. 『新時代』.
- 李光洙(1941.12.16.). 「大東亞精神の樹立」. 『日本學藝新聞』.
- 李石薰(1942.1.). 「聖地參拜通信」. 『朝光』.
- 田中捨彦(1944.5.). 「國語文學の前進」. 『國民文學』.
- 周越然(1943.8.25.). 「互識이야말로 根幹」. 『毎日新聞』.
- 竹內好 外(1963). 「座談會: 大東亞共榮圈の理念と現實」. 『思想の科學』 第21號.
- 川村湊(1998). 『滿洲崩壞: 「大東亞文學」と作家たち』. 文藝春秋.
- 崔載瑞(1941). 「太陽を上げ」. 『國民文學』 5·6합명호.
- 崔載瑞(1943). 『轉換期の朝鮮文學』. 人文社.
- 崔載瑞(1943.10.). 「大東亞意識の目覺: 第二回大東亞文學者大會より還りて」. 『國民文學』.
- 崔載瑞(1944.4.). 「まつろふ文學」. 『國民文學』.
- 片岡鐵兵(1943.9.10.). 「反動作家を掃蕩: 中國文學の確立要請」. 『文學報國』.
- 왕상위엔(2010). 「“대동아문학자대회”와 일본의 중국 운합구 문단에 대한 간섭과 침투」. 『제6회 식민주의와 문학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 平沼文浦(1944.5.). 「思想的前道: 國民文學から臣民文學へ」. 『國民文學』.

- 『國民文學』(1943.1.). 「對談: 文化と宣傳」.
- 『國民文學』(1943.8.). 「座談會: 國民文化の方向」.
- 『大東亞』(1943.3.). 「朝鮮側の發言集: 11月中旬東京に於ける大東亞文學者大會に於いて爲せる朝鮮側の發言集」.
- 『毎日新報』(1942.11.18.). 「滿蒙華文學者代表座談會2-西洋的인 것을 追放, 大東亞文學情神을 確立하자」.
- 『毎日新報』(1942.11.5.). 「大東亞文學者大會へ」.
- 『毎日新報』(1944.12.11.). 「成果는 實로 多大: 第三回大東亞文學者大會서 歸還한 香山氏談」.
- 『文學報國』(1945.1.1.). 「南京派遣代表歸還報告會」.
- 『文學報國』(昭和18年 8月 20日). 「大會趣旨」.
- 『日本學藝新聞』(1942.11.1.). 「大會趣旨」.
- Berger, Gordon(1974). 「アジア新秩序の夢: 大東亞共榮圈構想の諸相」. 佐藤誠三郎・テインクマン編. 『近代日本の對外態度』. 東京大學出版部.

| 논문투고일 : 2013년 11월 14일 |

| 논문심사일 : 2013년 11월 22일 |

| 게재 확정일 : 2013년 12월 16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0, No. 3 (2013)

**Logistics of Writers' Mobilization
: Focusing on 'Congress of Scholars of East Asia
Co-property Literature' under the War in the
Asia-Pacific**

Hye-Jin LEE

(Semyung Univ.)

Japan, the empire in the end of the colonial period and the Congress of Scholars of East Asia Co-property Literature, the international meeting of typical writers in colonies and occupied areas are applicable to final instances which decide direction of 'national literature'. If the end of culturism and the conversion to nationalism were early forms of the conversion theory of Joseon literature, 『National literature』 was changed to the 'the total Japanese magazine' from the combined number in May and Jun., 1942, 'Japanese' was raised to Common Japanese in the Greater East Asia and distributed, and the Japanese Ancient World was adopted as the main subject of 'national literature' as a means to strengthen 'the Japanese spirit'. Choi, Jae-seo lately changed his name and finally looked up to it because the Congress of Scholars of East Asia Co-property Literature which was planned three times with organization of 'Japanese Patriotic Association' acted as decisive opportunity. Therefore, as 'the Congress of Scholars of East Asia Co-property Literature' created a kind of strong stratum under the super ordinate concept of 'National Literature' in Joseon in the colonial period, it got to compose 'the Greater East Asian Literature' setting a goal of completing 'a

scripture' later. And strengthening of the 'Japanese spirit' which set the cause for Japanese form of state spirit was provided as a means to cultivate the heart of writers in the colonial period through trips to worship to the holy places in Japan. However, as historic imagination about Joseon's and Japanese Ancient World kept permanently because of cultural senses of superiority, they could not understand each other. Therefore, the true 'Greater East Asian Literature' could not be created in the end and concluded in the independent event of the Empire of Japan and the colonies.

Key words: Congress of Scholars of East Asia Co-property Literature, National Literature, Asia-Pacific, Greater East Asian Literature, Japanese Spirit